

## Gap between COPD Guideline and Real Practice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높은 유병률과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물론 일부 의사들에게조차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질환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COPD에 대한 진료지침은 전세계적으로 잘 공급이 되어있으며 대다수의 나라에서 GOLD(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의 지침서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진료지침이 항상 실제 진료에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어떤 지침은 따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진료지침을 따르기에 앞서 일반 국민들이나 의사들이 COPD라는 병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우선이다. 최근 한국에서 COPD의 고위험군인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을 때, 25% 만이 COPD라는 질환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진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인 폐기능검사의 시행율이 아직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폐기능검사는 장비가 필요하고 검사방법을 숙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폐기능수치를 대체할 다른 수단이 없으므로 COPD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검사이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아직도 폐결핵이 흔한데, 폐결핵은 COPD의 위험인자이기도 하지만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는 COPD에 준하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도 진료지침에서 새로이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과연 이런 환자들에서 기관지확장제 치료와 항염증치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연구와 이에 따른 지침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문제도 진료지침에 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나라에서 고가의 약제를 경제적인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대체 치료를 해야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진료지침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COPD 환자들은 경제적인 수준과 교육수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데오필린은 한국, 중국 등지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저렴한 약제인 만큼 이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치료 방침이 있으면 좋겠다.

호흡재활치료는 진료 지침을 따르지 못하는 주요 항목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밖에 시설, 구체적 프로그램의 부족, 관심 부재 등이 재활치료가 활발치 않은 요인들이다. 비슷한 이유로 재택산소치료도 많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산소치료는 유일한 생존 연장의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될 것이다.

COPD의 처방전에 많이 사용되는 객담용해제에 대한 지침도 좀 더 현실을 반영하면 좋겠다. 처방되는 빈도에 비해서는 지침서의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이다.

환자 및 의사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좀 더 강조되고, 진료의 일부분으로 늘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교육의 효과는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은 이를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기관지천식과 COPD가 다른 중요한 이유는 COPD가 전신질환이라는 점이고, 이로 인해 다수의 환자들이 심혈관 질환이나 악성종양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지침서에는 이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COPD환자를 볼 때는 반드시 동반 질환에 대한 문진과 검사를 시행하여 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진료지침서가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인 진단과 장기적인 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COPD환자를 진료한다면 지금 보다 더 양질의 치료를 할 수 있고 따라서 환자들의 예후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진료지침서와 실제 우리가 매일 행하고 있는 진료과정의 괴리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 것이다.